

근대 문학의 낭만과 미숙의 문제

- 형용사 '어린'을 중심으로 -

장보미*

〈차 례〉

1. 서론: 문학의 아동 인식과 주체 탐구
2. 자기 확정으로서의 반복과 감탄
3. 상대감각으로서의 서술어와 부사
4. 관계의 방향성과 고착된 목소리의 기능
5. 결론: 미래 규약을 위한 시간 묘사의 저편

[국문초록]

한국 근대 초기, 문학장에서 '자아의 발견'은 사회를 바꾸려는 계몽의 언어에 반발하는 태도로 비추어진다. 집단에 대한 한 명의 사람, 다수가 참여하는 운동에 둘러싸인 개인의 사유는 행위의 크기 면에서 한낱 점에 가까운 것이나 다름없었다. 거대 체계의 지배 앞에서 계몽의 문제는 개인에게 직접 행동을 지시할 뿐 그것을 이해 가능한 것으로 상정하지는 않는다. 폭력에 가까운 힘 앞에서 개인의 마음은 집단행동에 앞선 순위를 차지할 수 없었다. 계몽이 개인의 사유와 대치되는 양상으로 해석, 분류된 까닭은 여기에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성 앞에서 작은 감정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문학의 범주 안에서 각종 선전에 둘러싸인 주체의 말은 아무리 내면의 내면으로 도피하려 해도 계몽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문학 주체는 홀로 바꿀 수 없는 세계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스로 인정의 연술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 '나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자기인지는 세계의 혼란을 이해함으로써 발생한다. 윤리적 사유는 당위의 세계에 대한 인정 욕구로서 표시된다. 이 연구는 불안한 세계 앞에서 자기 온전함과 효능을 찾고자 하는 문학 주체의 태도에 주목한다. 현재의 서술 주체인 '나'는 하나의 장면 안에 어린 대상을 표출함으로써 자신의 서사를 압축한다. 그는 오늘의 상황이나 감정보다 덜 모호한 상태의 자기 과거를 추적함으로써 현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러나 회상 속 어린 대상은 '현재의 내가 되기까지' 완

*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 강사

성되지 못한 결핍의 정서를 내포한다. 내력 속 자기 결핍을 관찰함으로써 시작된 주체의 성찰 행위는 태도로서의 계몽을 지향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은 무지몽매한 대상으로 굳어진다.

[주제어] 근대시, 낭만, 계몽, 자아, 미숙, 어린

1. 서론 : 문학의 아동 인식과 주체 탐구

1) 자기 관찰과 타자 존중으로서의 객관화

개인은 세계의 문제에 직면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아를 발견한다. 근대 초기, 문학을 주도하는 서술 주체는 '나에 대해 생각하는 존재'였다. '나'와 '나의 감정'은 각각의 상태와 정황으로부터 표출된다. 이때 언어의 대부분은 서술 주체가 겪은 경험과 관련하여, 단정하고 분명함 대신 정의하기 어려운 감정을 표시하기 위한 일군의 수식어로 점철된다. 서술 주체 개인의 감정은 당대의 현실과 분리될 수 없다. '지식인이라면 마땅히 민중을 계몽하여야 한다'는 강령으로부터 소외되었던 개인이 조명받게 된 시점은 문학 개념의 발생 및 세련의 탐구와 관련한다. 집단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서 개인은 현상을 몸소 체험하는 과정에서 단일 집단의 동일 행위를 강조하였던 표어와 함께 내밀한 감정의 모호성을 동시에 주목하게 된다.

1923년 양주동, 백기만의 주도로 창간된 동인지 『금성』의 언어는 '계몽에 대한 거부 또는 반발'이자 '자의식의 세련'으로서 음울, 영혼, 신비 등의 개념에 천착한다. 문학을 현실 세계의 정언명령과 객관성으로부터 구분된 언술 행위로 이해하는 동시에 근대의 표징을 '내면의 탐구'로 삼았기 때문이다.¹⁾ 동굴, 병실, 죽음, 영혼, 신비 등의 단어군(單語群)은 미적 근대성을 지향하는 문학적 자아를 대표한다. 서술 주체는 식민지 사회에 던져진 복잡한 개인

1) 김옥성의 경우 1920년대 동인지 문단이 육당과 춘원의 윤리주의적 계몽에 반발하여 내면, 개인을 중심으로한 신비주의를 통해 미적근대성을 포섭하려 하였으며 '영혼'과 관련된 초감각성이 작품에 두드러지고 있음을 언급한다(김옥성, 「1920년대 동인지의 신비주의 수용과 미적 근대성」, 『한국현대문학연구』 제 20집, 한국현대문화회, 2006.12. 147~175쪽).

의 심사(心事)를 단적으로 표현한다.²⁾ 그러나 단정적 언술이 자아낸 이미지와 분위기는 여전히 모호하다. 동인지 문단은 항상 무엇을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하는 행위 지시 체계를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 동인 집단은 '나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으나, 상대적 조건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자아의 감정에 대하여 추적하고자 한다. 마음의 문제는 주체 자신이 처한 정황과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로 치환된다. 상태와 정황을 드러내는 수식어를 분석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감정의 양태를 살피고자 하였던 『금성』의 문학 주체는 오늘날의 모습이 과거에 근원한 것임을 떠올린다. 마음에 어린 불특정한 이미지 속 '어린 대상'을 주목하여 유년을 불연속적인 장면으로 그려낸다. 이 항목은 당시 소년운동 및 아동문학운동의 필요를 절감하였던 색동회를 중심으로 발간된 잡지 『어린이』와 확연히 다른 것이었다. 『어린이』는 여타 성인과 마찬가지로 한 인격체로서 어린 사람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면에서 어린이는 돌봄이 필요하나, 성인에 종속된 대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어린이는 자율적인 개별 주체로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그는 개별 작품에서 성인 주체의 기억에 결부되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존중받는 대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³⁾

2) 김춘식은 『금성』이 1920년대 '청년 정서' 중심의 동인지 문단을 완성 및 정리하는 시기에 자리해 있었다고 말하며, 이 청년 정서의 표현을 지향하는 두 축이 '민족의 이념'과 '개인의 감각'이었음을 덧붙인다. 『금성』의 경우 『백조』의 분위기와 조금 차이가 났는데, 후자가 감정적 분출에 그 역량이 기울어 있는 대신 전자가 형식적인 측면에서 더 뛰어난 수준을 보였다; 김춘식, 『미적 근대성과 동인지 문단』, 소명, 2003, 227~228쪽.

3) 『어린이』의 독자는 실제 어린이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비행사 安昌男의 글 「飛行機는엇더케쓰나」(『어린이』 1권 10호, 1923. 11. 12~14쪽), 李順根의 「고무는 엇더케 맨드나」(『어린이』 1권 10호, 1923. 11. 20쪽), 특별부록으로 最新 遊戯 「호랑이잡기 노는법」(『어린이』 2권 1호, 1924. 3. 41쪽)과 같은 분류의 글은 어린이에게 놀이, 생활과 관련한 상식 정보를 제공한다. 『어린이』 지면은 金石松의 글 「제발로제길을것자」(『어린이』 3권 3호, 1924. 3)와 같은 훈화, 역사동화, 「이겨참자미잇고나」라는 해당하는 笑話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이 지면에서 각 글의 서술 주체가 어린이를 관찰하여 묘사하는 관점은 다음의 사례와 같이 상당히 객관적이다. “밤이새이고 날만 밝으면 벌써 새벽부터 어린이의세가 그길위로쏘다져나옵니다 나오는 어린이마다 제각기 얼음지치는 스켓용구두를신고 나오는데 그네들의눈위를 화살가티 지쳐가는모양은 어썩게도 그렇게 빠르게게달리게 잘지치는지 모릅니다. 그러케빠르케가나면서도 지나가면서도 지나가는自動車와 馬車의사이를 이리똥을저리똥을 똥하여가면서 교묘하게도 잘빠져지나가는것을보면 그야말로 사람의짓갓지안케 놀랍습니다.”(「눈 오는 北쪽나라 아라사의 어린이 -재비와 가티날아다난다」, 『어린이』 1권 1호, 1923. 3. 4



소년 운동 및 아동문학운동과 관련하여 잡지 『어린이』는 “씩씩하고 참된 어린이”, “서로를 사랑하는 어린이”를 독자의 바로미터로 삼는다. ‘어린이다움’이란 건강히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할 대상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 교육과 같은 사회의 보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같은 시기, 1920년 동인지 문학의 지향성을 대표하는 『금성』의 작품 속 ‘어린 대상’이나 형용사 ‘어린’의 활용과 다른 모습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린이』와 『금성』의 동인 가운데 손

진태가 공통된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지면에 따른 서술 방식의 차이와 대상으로서의 어린이와, 그것의 어휘 활용 범주에서 형용사 ‘어린’의 활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불확실함의 인지와 답 없음에 대한 불안

가라타니 고진은 아동을 퇴행적인 대상으로 묘사한 어른의 시선을 지적하며 ‘진정한 아동문학’이 무엇인지 논의한다. 이것은 당대의 문학이 현실의 어린이를 직접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근대 초기 문학 작품에서 어린이는 주체적인 발화자가 아니라 성인이 바라보는 일종의 ‘풍경’으로서 발견된다.⁴⁾ 근대 문학에서 어린이는 성인의 관찰 대상이 된다. 성인과 구분되어야

쪽); 서술 주체가 어린이에 자기 과거를 투영하는 경우에도 어린 대상을 어리숙한 연민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보전해 오늘 날의 어린이가 지나야 할 태도 및 그것에 대한 조언과 지도(指導)에 적극적인 모습을 유지하고자 한다. “내가 二十年前에 글방에다니면서놀던 봄노리의뫼가지입니다. 말하려면 한이업습니다. 그리고 이글을쓰라니까 작고작고 그뫼의뫼이그리워서 못견대게됩니다. 이와가티 도흔뫼을 지금마지하머이는 어린이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스러울가요 뫼은 해마다오는것이나 어린이로서의 뫼은 한번보내면또만나지못하는것이오니, 부대부대 깃브게 이뫼을 재내기로합시다. 그래서 그깃뫼이 우리가늙어쇼부러질제까지 닛치워지지 안도록합시다.”(김기진, 「어린뫼 생각」, 『어린이』 2권 3호, 1924. 11쪽).

4) 가라타니 고진,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도서출판 b, 2010, 161~166쪽; 이 글에서는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기에 드러난 ‘아동’과 그 대상을 바라보는 서술 주체의 인식 태도를 주목한다. 아동을 대

한다는 지점에서 ‘아이다움’의 양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 유년기를 거쳐 성인이 된다는 점에서 성장 및 성숙의 관점이 투영된다는 것, 제도 교육을 통해 갖추어야 할 참다운 모습을 이상향으로 두고 그것과 거리가 먼 양상을 포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 등은 성인 문학과 분리된 영역으로서 아동문학이 자리매김해야 할 이유가 된다. 그러나 1920년대 초기 아동문학 운동이나 아동문학 관련 문단활동은 일부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지면과 작품에서 시 주체의 회상 행위와 아울러 자신 혹은 타자의 과거를 어리고 미숙한 것으로 치부한다. 『금성』이 어린이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주목하지 않는 지면이었다는 점은 아동이 거론된 서술 이미지가 모호하고 흐릿한 양상과 관련한다.⁵⁾

근대 문학 장(場)에서 형용사 ‘어린’은 ‘어리다’의 활용형으로서 때에 따라 나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린 대상, 어린아이, 어린 아이를 낚잡아 부르는 의미와 관계하여 어리석은 대상, 어떤 현상이나 빛, 그림자 등이 ‘은근히’, ‘희미하게’ 드러나는 모습, 빛으로 인해 눈이 부시거나 눈앞이 어른어른한 상태, 그러한 모습 및 상황으로 인해 얼떨떨한 감정, 눈물이 눈에 조금 낀 양상을 가리킨다. 여기에 자신을 낚잡아 ‘어린 대상’으로 비유함으로써 드러내는 겸손의 태도 또한 ‘어린’의 활용군(活用群)에 포함된다.⁶⁾ 『금성』에서 형용사 ‘어린’의 활용은 근대 동인지 문학의 ‘낭만성’과 부합

상으로, 아동 주체를 드러낸, 아동의 실상을 다룬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한국 문학은 아동을 문학 작품의 주체 또는 감상자로 대하지 않는다. 본격 근대문학 장르로서 아동 문학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5) 김행숙은 ‘계몽의 수사학’을 통해 자신을 책임질 수 없었던 미성년이 스스로의 용기와 결단을 통해 미성숙을 벗어나 지적 성숙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오상순의 『폐허의 제단』(『폐허이후』, 1924.2, 6쪽)에서 폐허 이후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주체는 순수함의 결정체로서 어린이를 특별한 존재로 표시한다. 교육이 필요한, 지금은 교육받지 않은 상태에 대하여 ‘순진무구함’의 아름다움으로 표상하기 위한 의도에서다. 회월의 『어린이의 航路』(『백조』 1, 1922.1, 55~56쪽)는 어린이의 영혼을 통해 내면세계 지향점이 표시된다. 같은 맥락에서 홍사용의 『꿈이면은?』(『백조』 1, 1922.1, 18쪽)에서는 아기의 웃음으로부터 순진무구함이, 울음으로부터 연약함이, 그리고 이것을 회상한 시인의 유년 공간이 불안한 현실의 대척점으로서 일종의 ‘낙원’으로 표상된다(김행숙, 『문학이란 무엇이었는가』, 소명, 2005, 235~246쪽).
- 6) 조선총독부 편 『조선어 사전』에서는 형용사 ‘어린’의 기본형인 ‘어리다’의 뜻을 ‘幼穉なり’, ‘薄く凍る’로 표기한다. 첫 번째 항목은 수준이 낮은 유치한 상태 및 유아의 단계를, 두 번째 항목은 넓게 스미는 모양을 의미한다. ‘어리다’는 ‘어려’의 기본형이기도 하다. 해당 표기 이후, 활용어로는 ‘어리 등절하다, 어리보기, 어리뻑뻑, 어리석다, 어리송하다, 어리숙하다, 어리층층, 어린것, 어린너석, 어린년, 어린놈,

하여 철모르고 지낸 시절에 대한 아득함과 그리움, 연민의 양상으로 표출된다.⁷⁾

유의미한 지점은 ‘어리다’라는 삶을 살아온 시간 또는 경험에 대한 상대적 지표가 단순히 어린이라는 대타적 대상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완성되지 않은, 부족함의 이미지 군으로 자리한다는 데 있다. ‘어린’의 수식 활용이 눈앞에 닥친 현상을 직시하는 대신 모호한 자기감정을 비유하는 데 사용됨은 문학 서술 주체가 어린이 개별체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하여 유사 서사를 양산해 내며, 어린이라는 존재가 생의 존립을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태도와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면화한다. 감상 및 작품 투고의 방식을 활용하여 어린이를 직접 참여하는 주체로 삼은 잡지 『어린이』와, 청년 독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관점과 언술 무대로서 문학에 세련됨을 형상화하고자 했던 동인지 『금성』의 성격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이 두 지면의 공통 서술자인

어린소견, 어린으희, 어린스애, 어렵없다, 어렵장이, 어릿어릿이, 명사인 ‘어머니’, ‘어마님’, ‘어마씨’ 없다, ‘어머니’, ‘어머님’이 차례로 제시된다(조선 총독부 편, 『조선어사전』, 1920, 589쪽); 같은 지면에서 어린이를 가리키는 단어는 으동(兒童)과 으희(兒孩)였다. 으희는 명사로 ‘幼兒’를 의미한다. ‘他人に對する自己の子の稱.’ 즉 타인에게 자신의 아이를 호명할 때 사용하였다. 으동은 으희, 아희와 같은 의미로 활용되었다(조선 총독부 편, 『조선어사전』, 1920, 566쪽).

- 7) 동인지에서 어린 대상은 울음과 귀여운 모습으로 대상화된다. 양육자 및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방정환이 잡지 『어린이』와 『개벽』 등에서 언급하였던 ‘참된 어린이’와는 다른 것이었다. 방정환이 어린이의 인권과 미래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안 동인지 문단은 어린이를 개별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동인지에서 개인으로 부각되어야 할 대상이 ‘세상의 모든 개인’이 아니라 계몽의 지침을 내면의 차원으로 받아들여 이제 막 사유를 시작한 청년이기 때문이다; 당대의 지론은 방정환의 아동문학론으로부터 읽을 수 있다. 장정희는 봉건제 사회에서 사용한 ‘아해’라는 ‘비칭(卑稱)’으로부터 성인에 대한 아동의 종속성을 읽어낸다. 해당 연구에서는 근대 이전의 유교적 관습을 이유로 아동이 ‘주체성을 인정 받지 못한 성인의 부속물’로, 자기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 존재이자 머지 않아 노동에 참여해야 하는 존재로 다루어졌음을 언급한다(장정희, 『한울의 내면성과 ‘참된’ 어린이의 형상화 - 동학과 방정환의 아동문학』, 『푸른사상』 42, 푸른사상사, 2022, 37~53쪽): 이지에의 연구는 역사 자료를 중심으로 아동 인권 인식의 변화 지점에 대해 언급한다. 이 연구에서는 1922년 식민지 조선에서의 어린이날 선언을 3.1운동 이후 사회 천도계의 지지와 사회 운동의 일환인 것은 물론이고, 1920년 스위스 제노바에서 이루어진 세계 아동 인권선언 및 아동의 날 제정과 역사적 맥락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어린이날의 제정 및 어린이 인권 선언은 봉건 사회의 윤리 규범과 질서로부터 억압되었던 아동을 해방시키는 일이었다. 이는 산업화 시대의 아동 노동 행위 금지와 밀서로부터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의 제정 및 인식 개선과 아울러 아동을 개인 주체로 대우해야 함을 대중에게 선전하는 것이기도 했다(이지애, 『일제시기 어린이날 기념 문화를 통해 본 어린이 인권 - 1920년대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160, 역사교육연구회, 2021, 264~268쪽).

손진태가 나이 어린 대상의 표상이나 어린이 주체의 권리 회복을 위한 계몽의 방식과 함께 청년의 내면에 존재하는 과거 속 연민의 대상을 분리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여러 사조의 유입과 식민지 사회의 빠른 변화를 견뎌야 하는 복잡한 문단 사회에서 민요, 민속학자가 관찰한 세계를 언어로 '자기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한국 근대 문학 형성을 위한 진정한 태도라 할 수 있다. 어린이에 대한 손진태의 태도는 『신민』 22호에 게재한 「조선의 동요와 아동성」에서 읽을 수 있다. 해당 글에서 동요는 아동성을 기반으로 하며 '순진, 소박, 생동, 식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⁸⁾ 그리고 아동은 천진난만한 상태를 인정받으며 존재를 인정하고자 하는 의도로 인해 보호받는다.⁹⁾

8) 孫晉泰, 「朝鮮의童謠와兒童性」, 『新民』, 1927.2.

9) 잡지 『어린이』는 어린이를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다음의 항목은 성인과 동일한 주제성을 지닌 아동의 모습을 서술한다. 아동은 성인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고 자기 취향을 내보이며 자기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대상이다. '어른'으로서 성인은 아동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행동과 표현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아동은 “恒常뒤편고, 노래하기를조와하며, 快樂과光明을要求한다. 요새 朝鮮아희들은感傷의인것을一般으로조와하는傾向이있지만, 그것도좁큰애들의말이오, 더어린아희들에게는亦是生動的인것이囑采를바들것이다. 하지만그러케童心을雀躍식힐作品을짓는사람은發見할수없다. 在來의 童謠는兒童의產物이요, 兒童生活의表現이므로, 만히그런것을볼수있다.”(손진태, 「조선의동요와아동성」, 『신민』 22, 47쪽).

“우리아희들은어린과함께 生의苦痛을맛보며, 生의苦痛에눈물짓는다. 生의苦痛을맛보고, 그苦痛에 눈물짓는아희들은, 그것을凡然히생각하는지물으고, 第三者들은그것이兒童의處地로서는幸福스럽다고할는지물으겠다. 하나, 第二者인우리의處地로서는, 天眞한우리아희들에게, 生動的인우리아희들에게, 勇敢한우리어린사람들에게, 悲哀感을주게되는것이얼마나憤한일이며, 얼마나붓그러운일인가! 그들은우리의슬퍼하는것을보고우리와함께울고저한다. 하나, 우리들의罪로서우리의아희들을, 울리는것은우리의참아못할일이안인가. 그들은어머니의품속을그들의天國이오樂地로생각한다.”(손진태, 「조선의동요와아동성」, 『신민』 22, 61쪽).

김기전의 「어린 세 생각」(『어린이』 창간 1주년 기념호(2권 3), 1924, 10~11쪽)에서는 “내가 이십년(二十年) 전에 글방에다니면서놀던 봉노리의멋가지입니다. 말하려면 한이업습니다. 그리고이글을 쓰라니까 작고작고 그색의봄이그리워서 못견대게됩니다. 이와가티 뉘흔봄을 지금마지하며있는 어린이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스러울가요 봄은 해마다 오는것이나 어린이로서의 봄은 한번보내면 쏘만나지못하는것이오니, 부대부대 깃뭉개 이봄을 지내기로합시다. 그래서 그깃뭉개 우리가늘어 꼬부러질때까지 닳지워지지안도록합시다.”에는 성인으로서의 관점이 부여되어 있으나 어린이의 행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위의 부분으로 하여 독자가 자기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판단을 요구한다.

『어린이』에는 비행사 안창남의 글 「飛行機는 엇씨케쓰나」(1권, 12~14쪽), 「어린이의 동모늘이기」 44쪽, 「고무는 엇씨케 맨드나」(1권, 10, 16~17쪽), 「호랑이 잡기 노는법」(2권 1호, 41쪽)과 같이 어린이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생활, 과학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손진태의 역사 동화 및 「조선의 동요와 아동성」에서 추측할 수 있는 점은 그가 아동을 인위적이지 않은, 순수한 심정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귀여운 이기주의자’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성』에서 형용사 ‘어린’의 활용은 멀리 관찰할 수 있는, 혹은 회상을 통해 어렴풋이 떠올린 어린 자신을 대상화하는 과정과 연관하는 탓에 위의 관점과 다른 면모를 보인다. 『금성』에서 ‘어린’은 ‘나’의 ‘감각’을 중심으로 삼는 시어의 전개 방식과 맞닿아 있다. 한 개인이 자기 존재를 탐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내력 밝히기를 선택한 까닭이다. 기억의 명확함과는 별개로, 부모의 나이가 되어 떠올리는 ‘나’의 모습은 안쓰럽고 애처롭다. 중요한 것은 ‘애-비에’의 양상 가운데 어린이의 목소리가 직접 드러나거나 어린이의 판단이 부여될 여지가 제거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어린’의 활용이 미흡함의 상징으로 관철된 까닭은 그것의 회복과 성숙을 담보하지 않음에 있다.

어린이를 작품의 독자로 삼지 않는 까닭에 동인지 문학, 그리고 『금성』에서 아동성이 부여되는 ‘어린’의 활용은 나이 어린 대상의 천진난만함이나 익살스러움, 장난치는 모습, 왕성한 식욕과 소유욕을 지닌 존재로 묘사되지 않는다.¹⁰⁾ 이 연구에서는 근대 문학 초기, 지면의 특성과 서술 방식의 차이를 살필 수 있는 대상으로 어린이를 주목한다. 이와 동시에 대상의 양태를 살필 수 있는 어휘로 ‘어린’을 채택하고 그 활용 양상을 분석하려고 한다.

2. 자기 확정으로서의 반복과 감탄

근대 문학에서 미숙의 양상은 ‘어린’ 대상을 바라보는 어른 주체 또는 타자의 고정된 시선으로부터 발생한다. ‘미숙함’은 계몽 개념이 전 사회적으로 강요된 시기, 미흡하지 않은 대상의 ‘인식’에서 발견된다. 미숙함은 성인(成人=어른)과 반대되는 것으로 의미화된다. 어른은 아동을 직간접적으로 양육하

10) 박경수, 「남창 손진태의 민요론 연구」, 『한국민요학』 59, 2020, 46~53쪽.

여야 한다. 여기서 양육은 넓은 범주에서 개체의 독립적 존립을 위한 가르침을 말한다. 어른은 신체와 정신 면에서 완성된, 전인적인 존재이다. 그의 눈으로 보건대 어른이 아닌, 미숙한 대상은 보살핌이 필요하다. 문제는 모든 성인이 어른이 될 수 없는 환경에서 발생한다. 신체적 성숙을 달성한 성인은 자신의 미혹함에 대하여 탐구한다. 그가 자신의 정신적 미완성을 신체적 조건 또한 완성되지 않은 ‘어린 대상’에게 투영하는 탓에, ‘어리다’의 개념과 범주는 의미의 상대적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평가 아래 놓인다. 서사적 발화의 주체인 성인은 계몽의 세계 내에서 ‘어린 대상’의 완전성을 배제한다. 그의 언술 행위가 ‘어린 대상’을 일깨우려는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 서술자는 대상의 미혹함을 이유로 ‘어린 대상’을 자신과 같은 위계에 올려놓지 않는다. 신체적 조건에서는 성인이지만 내면의 미혹을 탐지한 청년은 어린이라는 대상을 독립 주체로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

사똥한어머니품속에안겨/ 젖을문체로, 아기는사르^々잠들었다.¹¹⁾

어머니, 제게말하섯지요,
어제밤에별똥이써러젖슬새,
「저별똥을먹으면죽잔다」고.¹²⁾

위의 작품에서 서술 주체는 미숙한 타자를 관조한다. 미숙한 타자는 회상 속 자신이기도 하다. 주체의 일방적인 ‘들여다보기’로써 발견된 자이는 감정적 자립이 어려운 상태에 머물게 된다. 성인인 서술 주체의 존재적 탐색이 과거 회상으로부터 시작하는 까닭이다. 서술자는 단절되었던 자기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순간에도 온전한 ‘나’로 존재할 수 없다. 성인 서술 주체는 현재 상황에 자신을 고정한 채, 과거를 재현한다. 어린 나는 성숙하지 못한 안쓰

11) 梁柱東, 「無題」, 『金星』 1, 1923, 7쪽.

12) 孫晉泰, 「별똥」, 『金星』 1, 1923, 34쪽.

러운 대상으로, 부모는 어려운 환경에서 어린 나를 돌봐야 하는 애처로운 대상으로 표상화된다. 그의 위치 인식은 어린 주체 또는 대상을 과거의 자신으로 삼는 동시에 ‘그 시절’로 회귀할 수 없는 현재에 사로잡혀있다.

달아 너는몇살먹었니?
 몇살에너어머니돌아가셨니?
 나는다섯살에돌아가셨다!

달아 너 혼자어디로가니?
 이밤중에너혼자어디로가니?
 너의집은너의집은어디에잇니?¹³⁾

‘어린 사람’(아희, 어린애, 애, 소년, 소녀 등)은 비교를 통해 미숙함의 속성을 부여받는다. 비교의 주체는 글의 서술자로서 과거를 추측하고 언어로 상징하는 사람이다. 어린 사람은 어림짐작으로 판단되는 누군가이다.¹⁴⁾ 어린 사람의 감정은 그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성인 주체의 경험 감각을 따라 ‘인간 이라면 익히 그러할 것’으로 치부된다.

내면의 개별 언어로서 계몽이 형상화되는 과정은 단편적인 세계로부터 ‘나’를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여기서 계몽은 일종의 감정적 수행에 가깝다. 개인 주체가 세계로부터 자아를 분리하였다가 재접근하는 존재적 탐구 과정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¹⁵⁾ 이 과정에서 ‘세계와의 분리’에 해당하는 주체의 ‘과거 회자하기’는 실재하지 않는 과거 이미지를 구현

13) 孫晉泰, 「달」, 『金星』 1, 1923, 34쪽.

14) 이 항목은 인간성 또한 본래 자연에 가까운 것이라 여기는 주체에게 원천적 감정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계기가 된다. 시의 주체가 아기에게 달콤한 것이나 장난감을 쥐어주는 행위, 춤을 보기 위해 노래를 부르는 행위, 웃게하려고 입맞추는 행위(애정을 쏟는 행위)는 어린 대상을 변화 가능성이 적은 대상으로 묘사하여 그의 감정 또한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것으로 만든다. 「근대불란서시초(2)」(『금성』 2, 30~32쪽)에 소개된 보들레르의 「貧者의눈(The Eyes of the Poor)」서 ‘연약한어린애’의 얼굴은 암전하고 어리둥절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

15) Th. W. 아도르노, M. 호르크하이머, 김유동 역, 『계몽의 변증법』, 문학과지성사, 2001.

해낸다. 기억을 통해 드러난 과거는 현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소재 제일 뿐이다.

양주동의 「무제」에서 “싸뜻한어머니품속에안겨/ 젖을문채로, 아기는사르^ㅅ잠들었다.”는 부분은 잠이 들자 아이를 두고 나간 어머니와 그 둘이 함께 있던 방의 고요를 장면화한다.¹⁶⁾ 양주동이 번역한 타고르의 시 가운데 「아기의 버릇」에서 “아기는도모지우는것을아지못하였다. 그는完全한天福속에살고있었다./그가눈물을흘니기로한것은까닭이업는것이안이지./그는어엿보일골에웃음을낫하내여어머니의귀여운마음을잇글면서도,/하치안은일에우는그의적은울음으로써애처러움과사랑의두가지쓴을짜내이는것이다.”¹⁷⁾는 부분은 아이의 울음과 무지를 완전한 행복으로 인지한다. 손진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병든강아지」는 “어머니가 그리워/동무들이 그리워/병든 강아지 밤새도록 혼자/ 쭈얼거리며窓밖게서 운다”¹⁸⁾라며 대상의 연약함에 주목한다. 작품에서 글의 주체는 우는 행위를 정당화하고 보호받아 마땅한 상태를 강조함으로써 자신과 감상자에게 서사적 충족감을 주려고 한다.

주체가 묘사한 어린 대상은 절대 식욕을 채우기 위해 아쓰지 않는다. 몇 번의 울음으로 연약한 존재가 있음을 제시한다. 아동은 채워지지 않는 애정을 막연히 갈망하는 태도로 존재 증명을 대신한다. 그런데 정작 떼쓰기를 받아줄 상대가 없는 쪽은 ‘더는 어리지 않은’ 서술 주체이다. 현재로 소환된 과거의 기억은 ‘객관적 지표 없이 편집된 이미지’와 다르지 않다. 주체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주목함으로써 그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재의 자아를 드러낸다. 이는 근대 초기 낭만주의 작품 속 자아가 근대 이전의 계몽을 제거하기 위하여 타자로부터의 반사적인 독립을 주창하는 대신 일차적 내면의 분리를 선택한 방식과 연관한다. 계몽을 주창하고 수용하는 방식이 수평적이지 않음을 증명하는 바이기도 하다.¹⁹⁾ 개별 주체가 관찰하는 아동은 더이상 과

16) 양주동, 「無題」, 『금성』 1, 1923, 7쪽.

17) 양주동 역, 「아기의버릇(Baby's way)」 일부, 『금성』 1, 36-37쪽.

18) 손진태, 「병든 강아지」, 『금성』 2, 1924, 20쪽.

19) 계몽은 윤리 개념과 실천을 강조하는 직설적 언어를 택하는 동시에 사회 관계망에 흡수된 대상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제 모습을 드러낸다. 전자에 대하여 후자를 따르는 경우 대상의 정체성은 절대

거에 실재했던 누군가가 아니다. 거대한 세계 앞에 두 발로 서야 하는 인간이 지닌 불안과 낙약의 근원이다. 진정한 계몽을 실현하기 위해 마주해야 할 원초적 인간의 모습이다.

3. 상대감각으로서의 서술어와 부사

‘나’는 ‘나를 생각하는 존재’로서 ‘나의 존재 구현 과정’을 단순화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언어는 논리적 체계를 밝히기 위한 사유의 도구로 활용된다. 지금-현재의 나를 대변하는 가장 원초적인 것은 감정이며, 가까운 미래에 발생 가능한 현상의 대전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감정은 다른 개체 및 사건의 단독 원인이 될 수는 없다. 감정을 바탕으로 한 나의 사유가 ‘준-실체’를 획득하려면 그것을 언어로 공표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서술 주체는 존재의 사유 행위 증명이라는 인위의 문학 행위에 무엇이 적합성을 부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한국 근대 문학의 서술 주체는 문학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아 사유를 행하고자 한다. 문학과 문학인으로서의 나, 자연인으로서의 나를 연결하는 세계에 대한 존재적 당위는 모든 시간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작품에서 인간 활동 배경으로서 자연과 그것을 관찰하는 상황의 열거는 문학의 당위를 범세계적 진리와 같은 것으로 올려놓는다.

말이 임의 이에 니르니 넷일이 自然히 생각납니다. 벌서 午年前 일흔봄 내가 식골내집에 잇슬새일이외다. 해가뵈된 봄이엇지만은 남은치위가 아즉도 甚해서 봄이라야 봄가지 안했섯습니다. 찬바람은 如前히 귀사기를 양박하게도 불어 거리에 지내는 구차한벗들은 입에 손을 썬일새도업시 허리를쑤으리고 새우갓치거러가며 쓸압해서 노는 어린동모들의 연々한쌘은 닉은 林禽뵈을썬섯섯습니다. 大端히 치웁다는것보다 앓스^치웠섯습니다. 그러케 몇칠을 繼續해오더니 하로는 일흔넉

적 표상이 아닌 상대적 감각으로서 규정된다.

쫓겨야 사뭇한해빛이 앓김업시 싸우에 돌아 어린아희가 어머니의 사뭇한 품속에
담복안킨것갓했습니다.²⁰⁾

유춘섭의 「시와 만유」에서 ‘어린동모’나 ‘어린아희’는 글을 쓰기 위해 묘사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 사랑스러운 것에 해당한다. 시가 갖추어야
할 것은 “어린애의얼골에서도는 내넛날의기억을바라보면서”, “- 숨숨을모르
고 날을보내며,/ 철업는것봄으로 해를맛든, 그날을-²¹⁾”과 같은 천진함이다.
‘어린’은 무지의 상태가 자연스러우며, 특정한 사건 및 생활 반응과 관련하여
연민과 그리움의 태도를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다. ‘어린’ 무엇은 어리지 않은
것에 비해 다분히 낭만적인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 관계의 실상은 낭만적이지는 않다. 어린 대상은 울음으로 부모
에게 욕구 충족을 바라고 양육자는 젖을 물리거나 안아주는 방식으로 맹목적
인 태도에 대응한다. 이러한 관계와 호응이 처음부터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
다. 돌봄의 시간은 주 양육자가 어린 대상의 연약함에 대하여 자신이 보충적
행위 조달자임을 자각한 다음부터 시작된다. 생명의 탄생이 애착의 시작은

20) 작자 유춘섭의 어린 시절 기억을 묘사한 부분이다. 여기서 인위적이지 않은 것은 자연과 어린아이
의 언어, 놀이이다. 문학 언어는 부러 만들어 놓은 ‘-다음’이 아니라 이미 체험한 생활 및 주변 환경
으로부터 인정한 리듬, 아름다움과 연관한다는 것이다. 뒷부분에 뒤따르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때 그自然과 그말과 내누님과 나는 한가지로 한몽치가 되엿습니다. 그리고 내누님의 偶然히
나온그말한마디는 모든것을 詩化시켜 우리의夢想을 詩境에들게했습니다. 아! 그말의한마대여! 果
然 山詩의 一句이외다! 아즉껏 내가삼속에서 우뢰갓치울니나이다. 그러나 엇지만다시 그말만이 詩
일것이며 그날 그景致만이 詩境이엿슬가요! 우리의 나날이 듯는말은 새로히새로히 特殊한 리듬(音
律)을가지고 우리의 귀에울너오는 詩일것이며 우리의 左右에 둘러잇는 間斷업시 變하는 새로운美
는 우리의 눈에빛최는 詩境이외다. 그러나한갓遺恨은 그詩를 感할만한 그詩境을 알아볼만한 밝고
맑은耳目이 우리의게 늘 잇지 못할것이 더업는 탄식할點이외다. 우리의눈을 어둡게한 虛僞의文
明 우리의귀를 鈍하게한 이 알미운 쇠소래여!(柳春變, 「詩와萬有 - 詩를쓰려는벗님들에게 -」 부분,
『금성』 1, 40~47쪽.

21) 하로사날 썩애기(赤子)의웃는 얼골을바라본제,
문득 나는넛날을 되푸리하엿노라.
- 숨숨을모르고 날을보내며,
철업는것봄으로 해를맛든, 그날을 -
그리고 나는 눈물지엿노라,
어린애의얼골에서도는 내넛날의기억을바라보면서.
(유춘섭, 「感傷의 斷片」 중 일부, 『금성』 2, 1924.1.25, 9쪽).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계의 일방성은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정당화된다. 양육자는 일방향의 보호를 보장하지만, 자녀와 자신이 겪어야 할 사회의 공포에 맞서 싸우는 사람으로 비추어지지 않는다. 둘의 관계가 낭만적으로 관찰, 인식되는 까닭은 울음과 같은 신체적 반응으로 드러나는 아동의 소통 또한 일방적이고, 표현의 크기가 필요 이상이라는 지점에 있다.

한울은 永遠히 귀여운 어린現像들과, 안고 보담고 입맞초면서 원갓것이 하나도 서로 써나잇는것은업다. 한울은 달과 별들을 가슴에안고, 바다긋흔 한울긋과 입맞 초며있다. 山과山은 서로 붓들고, 물과물은 서로 모힌다. -중략

「眞理에 삶을 잊지못할새에는 차라리 너의生命을 내여던져라. 人生에 그러케 執着이만니? 어리석은 사람의 微物! 하로살이도 깃버죽으며 한덩이 흙도 法稅에 사느니! 죽어라 죽어라 어서죽어라 흙이되거라 물이되거라! 흙도 한울님의 藝術品이며, 물도 한울님의 傑作이니라! 흙에도 한울님의 生命이 흘르고, 물에도 한울님의 靈이 쉬느니! 너의 生命을 바리는 最後의 날이, 眞理의 큰길에 나서는 첫날이니라!」²²⁾

“自然은永遠하다, 宇宙는無窮하다. 그러나人生은 짧으다, 그럼으로사람의產物인 藝術은, 人類을滅亡과同時에滅亡할것이다. 藝術은사람의어린아희들이하는 「동독갬이살님」이다. 사람의하는일은結局사람의하는일그것밖에아모意味도價値도업다. 그러나그들은발서사람이안이다, 그들은自然이다. 그렛타, 그들은自然이다. 自然은 우리들의돌아오기를기다린다. 그러나사람의어린아희들은동독갬이살님에精神을일어, 어머니의가삼을이저바렸다. 그리다가는畢竟동무끼리서로싸호며 울며하야, 그 동독갬이살님에絶望한뒤에야 어머니를불으며뛰어들어오는것이다. 인제는人類도울며어머니를차츰새가되엿을것이다. 사람은두동무를일었다. 그러나아모도설어하는者는업다. 사람들은모다잠만잔다. 來日의名譽와權力和虛榮을꿈꾸면서코만들々골고잔다. 그러나自然은그두사람을엇어, 自身을잇고깃버하며된다. 莊嚴한그

22) 孫晉泰, 「生の哲學」, 『금성』 3, 12~14쪽.

들의歡迎會는自然의어머니집에準備되었다. ……………그들은한가지로어머니를어려서일었다. 그리고이번은아버지와作別하였다. 동무를써나, 同胞를써나, 그리고人類를써나서,그들은……………」이러케생각을繼續할새, 문득異常한物體가나의視線을 가로막었다.²³⁾

「생의 철학」과 「둔세자의 눈」은 절대자 및 세계에 대한 무지의 거울로서 ‘어린 대상’을 상징하고, 진리를 찾고자 탐구하는 문학가의 모습을 열거한다. 모든 과거의 나열에는 그것을 다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한울’ 혹은 그것을 이해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나’의 의도가 담겨있다.²⁴⁾

계몽은 위압적인 세계에 대하여 개인이 온전히 존립할 수 있을 때, 감정의 불안을 이겨낼 수 있을 때, 내면 언어로서 형상화된다. ‘나’는 불합리한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세계를 부정하나 소속 변경 불가의 상태를 깨닫고, 체계를 전복하는 대신 수용 가능한 언어로 자기 자신을 인정케 하고자 한다. 세계 내 존립을 위하여 모든 무지에 대항하는 방식으로서 언어에 세련을 기하고자 한다. 작품에서 구문의 반복과 의미 중첩은 어린 대상의 몽매한 태도가 개선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다’, ‘-라는 것이다’와 같은 형태의 평서문 반복은 주체가 관찰한 대상을 그대로 보여주하고자 하는 설명 태도를 반영한다.

개인 주체가 세계로부터 자아를 분리하였다가 재접근하는 과정에서, 관통하는 주제로 ‘나’를 삼는 까닭에 인지적 시각의 방향은 중심으로부터 바깥으로 확장하는 양상을 띤다. 회상을 통하여 과거를 추적하는 주체는 해당 시점에 대한 단서와 그것에 각인된 감정을 반추한다.²⁵⁾ 현재 - 지금 - 여기에서 ‘관찰하는’ 주체는 아무것도 뒤집지 않았다. 따라서 기억 속 정황만이 의미심

23) 孫晉泰, 「遁世者の眼」, 『금성』 2, 1924.1.25, 67~72쪽.

24) 장동석, 「한국 현대문학에서 ‘계몽’과 ‘감정’의 관계성, 그리고 미적표지」, 『한국시학연구』 60, 한국시학회, 2019; 장동석은 ‘계몽’과 ‘감정’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미적 자율성을 획득하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감정은 ‘계몽의 과잉’, 즉 이성의 과잉과 관련한다.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바 이상으로 표출되는 표현의 해석불가 상태가 이른바 ‘오뇌의 감정’이며, 이것의 ‘임여성’과 ‘무한성’이 한국 문학의 미적 자율성의 원리가 된다고 이야기한다.

25) 노지승, 「긍정적 정체성으로서의 근대문학 서술과 근대성의 재의미화: 1960년대~70년대 초반 문학비평에서의 전통과 근대성」, 『우리말글』 제 54집, 우리말글학회, 2012.4, 221~265쪽.

장함을 자아낸다.

계몽과 낭만의 완전한 분리는 세계 사조의 동시다발적 유입을 겪는 근대 문학 주체에게 불가능한 것이었다. 개별 주체가 맺고자 하는 세계와의 관계 양상 및 문학 지면의 용도, 작품에 사용된 어휘의 맥락에서 주체의 방향성 및 주체의 태도를 어떤 사조에 가까운 것으로 읽을 수 있다.²⁶⁾

4. 관계의 방향성과 고착된 목소리의 기능

문학에서 어린 대상은 “풍경으로서 발견”된다.²⁷⁾ 서술 주체는 ‘어린이의 감정이 무엇이다, 어떤 상황이다’라는 전제를 언어로 표기하고자 한다. 이 언어는 실제 어린이의 다양한 기질을 반영할 수 없는, 상대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의 관점을 따른다.

관찰자의 단언(斷言)으로 인물의 불안 상태가 제시된다. 근대시의 주체는 특정한 정보나 문제에 주목하여 과정상 해결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보다,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그것으로부터 원초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을 예고한다. 눈앞의 양상을 묘사하려는 태도는 대상의 상태를 강조한 서술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26) 이 논문은 아래의 선행연구와 궤를 같이하여 1920년대 동인지 문단의 작품을 낭만주의, 습작, 미성숙의 키워드로 읽는 발전적인 문학사와는 다른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권성훈은 일제강점기에 문단에 나온 자아를 주목하는 시편이 단순히 개인의 개성을 노출하는데 멈추지 않고 사회와의 관계 탐구를 통해 성숙한 지점을 양산하고자 하였다고 이야기한다. 이 연구자는 칸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의 논의와 함께 사회에 대한 불안과 트라우마를 해결하고 자기성찰을 통해 자아실현 및 자아방어적 계몽성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시편은 동인지 문학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자아의 탐구 방식이 개인의 미성숙함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래 가능한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여기에 계몽의 관점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근대 문학의 ‘자아 탐구’ 방식을 낭만의 관점으로 분리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권성훈, 「한국 ‘자아상’ 시의 계몽성 연구」, 『춘원연구학보』 10, 춘원연구학회, 2017, 275-298쪽); 박현호는 낭만주의의 논의가 백조를 비롯한 3대 동인지 발간 시점에 언급되었던 점을 거론하며, 입화의 신문학사, 조연현의 문학사가 발전사적 관점 아래에 이 시기 문학에 대한 평가를 감성성에 치우친 미성숙의 과정으로 판단하였던 항목에 주목한다(박현호, 「낭만, 한국 근대문학사의 은폐된 주제: ‘질문’을 위한 준비」, 『한국학연구』 2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27) 가라타니고진,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앞의 책, 163쪽.

눈녹아흐르는 첫봄의한나스,
 질편한大地의 한갓을받고서서
 쓴입업시 울너오는봄의序曲을
 내어린턱이 듯고잇노라면,

꽃도안뵈는 어대서인지,
 生의衝動에 넘쳐나오는
 애타는歡喜의 노래가락이
 내어린턱을 부르고있다.²⁸⁾

위 시에서 어린 시절을 관망하는 주체는 언어로서 확정된다. 그는 과거로부터 발생한 감정이 오늘의 나를 대표한다고 말한다. 근대시의 계몽은 일차적 명령의 나열로부터 나아가 주체의 인지로 하여 사물이 재정리되는 방식으로 수렴된다. 진리의 탐구를 마친 선지자를 도덕적 유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상대적 관점’을 띤 형태로서의 계몽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계몽은 단일한 본질이자 행동 강령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획득할 수 있는 ‘참됨에 대한 믿음’과 수행 과정에 해당한다. 국가의 집단적 정언명령을 수행하던 개인 발화자가 내면의 조율과 함께 계몽의 개념을 개별 언어로 흡수한 것이다.²⁹⁾

『금성』의 문학 주체는 신체시가 표방한 사회적 인간형에 대한 지시적 계

28) 林龍瑞, 「첫봄의한나스」, 『금성』 3, 1924. 5, 40쪽.

29) 계몽의 본질은 ‘명확한 개념’, ‘철저한 확신’, ‘지혜로운 사람 간의 합의’와 같이 그것이 인간의 인식과 입증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는 데 있다(임머누엘 칸트, 임흥배 역, 『계몽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길, 2020, 51~55쪽); 본 연구는 한국 근대시를 시기적, 내용적 특질로서 분류한 핵심어로서 ‘계몽’과 ‘낭만’을 주목한다. 한국 근대문학 영역에서 계몽과 낭만이라는 말은 전체 영역 가운데 일부를 분절하는 방식과 아울러 그 특성을 밝히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문학 작품에 포함된 계몽성과 낭만성을 서로 배타적이라 확정할 수 없다. 두 단어는 각기 다른 분야의 일정한 양상을 대표할 뿐이다. 계몽과 낭만은 근대적 언어 및 사고관을 중심으로 중첩된다. 이 연구는 내면을 형상화 한 감정어와 관련, 언어의 양상을 ‘낭만’으로 확정하기 이전에 작품의 개별주체가 사회로부터 형성한 관계망을 어떠한 방식으로 언어 현장에 표시하였는가를 살피기 위한 방식으로서 ‘인지 행위’를 살핀다. 여기서 인지 행위는 ‘나’ 혹은 관찰된 ‘대상’에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몽 대신 개인의 수행으로써 인식 행위에 집중하고자 한다. 만들어진 이상적 사회를 향해 모두 함께 나아간다거나 그러한 목적을 위해 무지몽매한 대상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 대신 인간으로서 무엇을 보고 듣고 사고하고 있는가를 언어로 표면화하고자 한다. ‘본질’을 달성하려는 목표의식 대신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떠올리기 위하여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 나’의 상황과 감정을 파헤치고자 한다.

‘입=이상향’으로서 계몽의 지표는 ‘미숙’을 개선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러한 개체를 고정된 이미지로 형상화함으로써 실현 가능해진다. 여기서 ‘나’와 내면화된 감정은 강령으로서의 계몽을 전면화하지 않고 오히려 미래시점에 대한 이상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로부터 동력을 찾을 것을 기획한다. 문제는 이 방식이 일종의 서술로의 이미지 중계로서 시행된 일시적 단계이며 직접 행동 강령을 유도하는 태도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뒤에장마씨가될새마다, 그는어머니의무덤을생각한다, 시뵈언黃土스물이넘어
어머니의屍體를씩워갈가念慮이다.

그리하여靑개고리는장마씨에운다, 비마즌나무입해서몸을적시우면서어머니를
생각하고는, 슬푸게^소리쳐우느니라.

아이들아, 너들이일즉이장마비오는날, 쏘는밤 靑개고리의우는슬픈노래에, 귀
를기우려들어본적이잇느냐.

(이것은우리의엇던地方에傳해오는아이들이악이를詩로쓴것이외다.)³⁰⁾

동시(童詩)로 분류된 이 시는 전래동화 ‘청개구리’를 모티프로 한다. 청개구리가 불효자식이라는 단언은 성인의 처지를 반영하며 ‘아이들’에게 편견을 제시한다. 서술 주체는 동시의 독자에게 가르치는 태도로 청개구리의 행동이 그의 부모에게 자식으로서 부적절한 것이었음을 말한다. 이 시는 전래동화에

30) 白基萬, 「청개구리」, 『금성』 1, 32~33쪽.

서 청개구리의 부모가 자식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무계로 자녀의 행위에 질문을 던진다. 교훈은 본래 계도(啓導)를 위한 일방적인 가르침의 말이었다. ‘반다시’, ‘기어히’, ‘-만’과 같은 부사로 평가의 지표로 자식 같은 존재의 삶에 개입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노래에 귀 기울여 보려는 주체의 모습은 대상에게 강령을 설파하는 대신 관계 맺음을 우선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계몽은 훈수 이전에 성찰을 유도하는 단계로서 다루어진다.

전래동화를 모티프로 삼는 동시는 정언명령으로서 효도 관념을 열거한다. 여기에 표시된 관념 언어는 행동의 변화에 선협해야 하는 인식의 조정을 목표로 삼는다. 계몽의 문제가 행동 제어만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무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술 지표를 만들어야 함을 시사하는 지점이다. 일종의 ‘명령으로 표기된 교육’으로서 문학이 효율적인 계몽을 실행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기도 하다. 이 지점은 청년을 주요 독자로 삼는 지면에서 강조된 드러난 ‘의문’ 형태의 서술과 연관한다. ‘읽고, 생각하라.’와 같은 형태의 계몽이 시도된 것이다. 여기에 사건의 인과를 직접 제시하지 않는 추론의 방식이 활용된다. 판단을 유보하고 상황을 예들러 표현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도리어 인식의 단계가 늘어난다. 다만 추론의 과정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 실제의 대상 탐구 대신 자기 경험을 사유의 기저로 삼은 것 등은 개인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확장하고자 할 때 충분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³¹⁾ 특이점은 아동의 식욕과 소유욕마저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머니 품이나 형제, 누이와 함께 우는 상태는 삶의 의지나 생동성을 표시하기보다 ‘애-비에’의 양상을 단순화한다. 이 관계가 확장되면 국가 상실에 따른 조선 민족의 상태로 연결되기도 한다.³²⁾

31) 손진태의 아동론에서 식욕과 소유욕을 갖춘 대상이 오늘 내뱉는 말을 제거하였다는 점은 사유의 복잡성마저 제어한 한계로 보인다.

32) 박경수, 「남창 손진태의 민요론 연구」, 『한국민요학』 59, 2020, 64쪽; 이 연구는 손진태의 동요 및 부요에의 시가와 민요론과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5. 결론 : 미래 규약을 위한 시간 묘사의 저편

근대 시의 주체는 '신시대를 열어보려는 자아가 무지몽매한 대상에게 깨우침을 부여해야 했던' 신체시의 작자로부터 분리되고자 '나의 감정을 문학 작품의 중심에 세웠다고 평가받는다. 시의 작자가 각 작품의 언어 주체로 상정한 '나'는 대상의 역사적 대표성을 부여받아 근대의 맹아로 대우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근대의 맹아 처우를 받은 '나'는 무지한 세태를 직접 보수하려 나서기보다 자신의 일상과 비애의 면모에 주목한다. 개인 주체는 그의 외계로서 세계의 광활함에 압도된 삶과 억압당한 감정을 표기한다. 개인과 세계의 범주는 비교 불가한 절대적 차이를 드러내고, 시의 주체는 자신이 당면한 상황을 감상자에게 감각적 장면으로 제시한다. 이 항목은 사실적 정보에 대하여 감정적 징표를 제공하는 문학의 목적 및 예술적 징후와도 관련한다. 그런데 거대 세계 앞에서 단출한 개인을 주체가 인식하고 있다는 관점과 함께, 개인이 인지하는 감정이 '비애'에 가깝다는 점은 '내가' 세계와 관계상 우위를 점할 수 없음을 맥락화한다. 개인과 세계의 이지러진 관계 양상은 주체의 상태를 '미숙'한 것으로 이해하게 한다.

기존 연구에서 낭만은 미숙의 개념을 단순한 문제로 만든다. 미숙은 개인이 성장하는 동안 떨쳐내야 할 항목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것은 현상의 내면 투영과 과몰입만을 강조한 해석이다. 이후에 등장할 '성찰' 행위로의 연결 고리를 끊은 것이나 다름없다. 어린 대상이 드러내는 무지함과 기초적 욕구는 부모의 돌봄 필요를 강조한다. 글의 주체는 부모의 역할 당위를 자연스럽게 치환하며, 자신의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 시대적 이유를 붙여 놓는다. 그러나 관찰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주체는 자기감정을 개입시킬 수밖에 없다. '어린아이, 아기, 애' 등은 근대 초기, 상대적인 약자에 대한 문학적 지표로 사용된다. 이 지표는 '어린' 인물을 능동적인 대상이나 삶의 동료로 삼기보다 보호를 받아야 하거나 그러한 대상으로 여겨져야 함을 전제한다. 대상에 대한 성인 주체의 연민과 자기 투사가 근대적 자아 인식의 한 양상으로 활용된다. 근대 문학 형성의 담론적 주체로서 '문학적 자아'는 개인의 감정과 그것

의 불완전성을 드러내고자 인물의 비장함 또는 엄숙성 대신 미숙하고 돌봄이 필요하여 주목할만한 대상을 주체의 말로 그려낸다.

근대 문학에서 개인의 발견은 관계 불충분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 결핍의 대상을 전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청년 구독자 중심의 지면에서 어린이의 등장은 '결핍 - 성찰' 단계에 필요한 개체를 표상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기 계몽이자 단절된 역사관의 새로운 모색이 이루어진다. 단순히 사회적 윤리의 당위성을 개인에게 강조하는 계몽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계몽의 세계로부터 개인의 세계로 들어선 문학 주체의 과도기적 면모가 '어린'이라는 기표에 담겨있음을 작품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

■ 참고문헌

『금성』 1, 1923.11.
『금성』 2, 1924.1.
『금성』 3, 1924.5.
『백조』 1, 1922.1.
『어린이』 1권 10, 1923.
『어린이』 2권 1, 1924.
『어린이』 2권 3, 1924.
『어린이』 3권 3, 1924.
손진태, 「조선의 동요와 아동성」, 『신민』 22, 1927.
조선 총독부 편, 『조선어사전』, 1920.

단행본

김춘식, 『미적 근대성과 동인지 문단』, 소명, 2003.
김행숙, 『문학이란 무엇이었는가』, 소명, 2005.
가라타니 고진,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도서출판 b, 2010.
임마누엘 칸트, 임흥배 역, 『계몽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길, 2020.
Th.W.아도르노, M.호르크하이머, 김유동 역, 『계몽의 변증법』, 문학과지성사, 2001.

학술지

권성훈, 「한국 '자아상' 시의 계몽성 연구」, 『춘원연구학보』 10, 춘원연구학회, 2017.
김옥성, 「1920년대 동인지의 신비주의 수용과 미적 근대성」, 『한국현대문학연구』 20, 한국현대문학회, 2006.
노지승, 「긍정적 정체성으로서의 근대문학 서술과 근대성의 재의미화: 1960년대~70년대 초반 문학비평에서의 전통과 근대성」, 『우리말글』 제 54, 우리말글학회, 2012.
박경수, 「남창 손진태의 민요론 연구」, 『한국민요학』 59, 2020.
박헌호, 「'낭만', 한국 근대문학사의 은폐된 주체: '질문'을 위한 준비」, 『한국학연구』 2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이지애, 「일제시기 어린이날 기념 문화를 통해 본 어린이 인권 - 1920년대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160, 역사교육연구회, 2021.
장동석, 「한국 현대문학에서 '계몽'과 '감정'의 관계성, 그리고 미적표지」, 『한국시학연구』 60, 한국시학회, 2019.
장정희, 「한울의 내면성과 '참된' 어린이의 형상화 - 동화와 방정환의 아동문학」, 『푸른사상』 42, 푸른사상사, 2022.

The problem of romance and inexperience in modern literature

- targeting the adjective 'young' -

Jang, Bo Mi*

In the early modern days of Korea, the discovery of the self is reflected in an attitude against the language of enlightenment to change society. The individual's thoughts surrounded by a movement in which the majority participated in the group do not have much impact. Under the dominance of a large system, the issue of enlightenment only directly instructs individuals to act, but does not assume it as understandable. In the forces close to violence, individual minds could not rank ahead of collective action against the forces just as a violence. This is why enlightenment was interpreted and classified as a confrontation with individual thinking. In terms of the efficiency of problem-solving, small emotions were treated as insignificant lightweight. However, within the field of literature, the words of the subject surrounded by various propaganda cannot escape the influence of enlightenment no matter how much he tries to escape to his inner self. Rather, literary subjects want to make themselves sound in the category of recognition that can change the world at the individual level. The exploration of "Who am I and where and what to do" comes from an attitude to understand the world and to feel self-integration and efficacy from it. Ethical reasons are expressed as a desire for recognition. This study begins with the recognition of the attitude of this literary subject. Individuals have never ruled out the world. The inner exploration of the subject prominent in modern literature begins by assuming 'I' as an object of observable state. In particular, 'I' is a literary narrative and

*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in Korea University / lecturer

is represented as a young object in the scene. This is because the subject living in the real world intends to review the situation that has already ended. The method of tracking one's past is clear in the intervention of subjectivity. However, it can be less ambiguous than the current situation or emotions in that there is a starting and ending point of the narrative. The young needs care, However, due to the circumstances beyond the control, this young object has a feeling of deprivation until he or she becomes the present I. The reflection begins by observing self-deficiency. This presents the enlightenment as an attitude rather than as a behavior. The ignorance of young objects is represented by gradual inexperience to elicit reflection along with individual self-exploration.

Key words: modern literature, romance, enlightenment, inexperience, young